

한국어 교육 향상을 위한 언어학적 기초 연구*

이 현 복(서울대 언어학과)

I. 한국어 교육 향상을 위한 음성·언어학적 연구의 필요성

한국어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어에 대한 음성·언어학적 기초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실제 교육에 체계적으로 응용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 향상을 위한 음성학 및 언어학적 요인에는 발음, 문법, 어휘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바르고 정확한 표준 발음은 한국어 교육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발음은 음성 언어의 도구요 언어의 외적인 실현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어의 발음 교육을 향상시키려면, 발음의 핵심이 되는 자음과 모음의 음가, 모음의 길이, 강세와 리듬 및 억양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음성은 모든 언어에서 중추적인 구실을 한다. 음성이 없다면 언어는 통신 매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것이므로 언어 자체가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음성은 또한 소리말의 핵심을 이룰 뿐 아니라 글말과는 달리 소리값의 변동이 심하여 방언간의 차이를 빛어 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표준말 교육을 향상시키려면 무엇보다도 표준 발음의 교육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한국어의 발음, 특히 표준발음에 관한 음성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그 동안 한국어의 문법이나 역사적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였던데 비해서 음성학적인 연구는 상당히 저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전문 음성학자의 절대수가 부족할 뿐 아니라 음성학적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부족하였던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표준발음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을 다음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이 논문은 1988년도 대우학술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1. 순수 음성학 및 언어학 분야:
음성학 및 언어학적 연구에 중요한 바탕이 된다.
2. 한국어 및 외국어 교육 분야:
정확한 표준 발음 교육과 학습에 필수적이다.
3. 전자 통신 공학 및 전자 산업 분야:
한국어를 매체로 하는 통신공학과 전자산업 분야에서 음성에 관한 연구는 대단히 중요한 바탕이 된다.
4. 언어 치료 분야:
언어장애자의 발음 진단과 치료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5. 과학 수사 분야:
음성학적 연구 결과는 음성과 음가의 정확한 판단에 의한 과학 수사에 활용된다.
6. 연극 등의 무대 예술 분야:
표준발음에 관한 지식과 훈련은 무대 예술의 기본이 된다.
7. 성악 및 작곡 분야:
음성 연구는 성악의 발성법에 이용되며 작곡에도 필요하다.
8. 시의 율격 형식 연구 및 그 응용:
표준발음의 내용은 시의 율격과 형식의 연구 및 작시법에 활용된다.

이중에서도 음성학은 표준 발음의 교육과 학습에 있어서 대단히 필요한 구실을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한국어 교육의 향상을 위한 음성학적 요인의 연구 결과와 이의 한국어 교육에의 활용에 초점을 맞춘다.

II. 한국어 표준 발음의 교육과 리듬의 중요성

한국어의 발음 교육을 향상시키려면, 발음의 핵심이 되는 자음과 모음의 소리값, 모음의 길이, 강세, 리듬 및 억양 등의 음성학적 요

인을 체계적으로 교육해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발음 현상 중에서도 말의 강세와 리듬은 발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말의 리듬은 말씨의 특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아무리 모음의 소리값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낱말과 문장의 리듬이 바르지 않으면 표준 발음을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리듬은 한국어와 외국어가 다르며, 심지어는 같은 한국어라고 할지라도 표준말과 사투리가 다르게 마련이다. 가령, 표준말씨와 경상도 말씨에서 “해바라기”라는 낱말은 서로 다른 리듬으로 발음된다. 이 낱말이 표준말과 경상도 말에서 발음되는 리듬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표준말은 [해'바라기]와 같이 둘째 음절에 강세를 두고 발음하고 경상도 말은 [해바'라기]와 같이 셋째 음절에 강세를 두어 발음하므로 결국 서로 다른 리듬 유형을 보이는 것이다. 이같은 리듬 유형의 차이는 미세한 모음 음가의 차이보다도 훨씬 뚜렷하고 강렬한 인상을 듣는 이에게 전달하게 마련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투리 말씨가 표준말씨와 리듬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경상도 발음을 표준발음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리듬의 유형을 교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경상도 말의 리듬을 서울 표준말의 리듬으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서 리듬 교육의 필요성이 자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어의 표준 발음에서 나타나는 리듬의 실례를 유형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표준 발음 교육에 응용하도록 하고자 한다. 이같은 리듬의 자료는 한국어의 표준 발음을 교육하고 학습하는데 곧바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한국어

의 교육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III. 한국어 리듬의 표기 방법

말의 리듬을 정확하게 나타내려면 적절한 표기 방법이 고안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국어의 리듬을 표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발음의 표기는 한글 기호로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강세를 받는 음절은 그 앞에 < ' > 표를 두어 표시한다.

보기) '정치, 자'동차, '소오대장

2. 긴 홀소리는 해당 홀소리 글자를 두 번 적어서 나타낸다.

보기) 사람 -> '사아람, 경기 -> '겨영기

여기서 <사아> 와 <겨영> 은 각각 두 음절이 아니고 한 음절이 되지만 길게 소리난다는 것을 나타낸다.

3. 원소리는 원소리 글자로 적는다.

보기) 을지로 -> '을찌로, 갔다 -> '갸따

4. 덧나는 소리는 그에 해당하는 글자를 넣어 나타낸다.

보기) 어떤 일 -> 어'뻬닐

5. 나도 좋고 만나도 좋은 수의적인 소리는 괄호 안에 넣는다.

보기) 그으(ㄱ)카다, 이(ㅅ)썸파, 가정바(아)ㅇ 무나, 우리
마(아)ㄹ

6. [위] 와 [외] 는 아직도 단순모음으로 보는 견해가 많으나, 오늘날 이 두 소리는 이중모음으로 나는 것이 압도적이므로 여기서도 이중모음으로 다루었으며, 특히 [외]는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기 위하여 [웬]로 적었다.

보기) 외국 [웬에국], 윈다 [웬다]

7. 홀소리 [의] 는 표준말에서 실제로 나는 대로 적는다.

보기) 의미 -> 의미, 나의 고향 -> 나에 고향,
민주주의 -> 민주주이

8. 낱말의 경계가 우리말 리듬의 단위인 “말토막”의 경계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말토막의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말토막을 단위로 하여 띄어 쓰기를 한다.

보기) 그 사람은 어제 갔다. -> 그'사아라든 어제'갔다.

IV. 한국어 리듬의 유형

모든 한국어의 낱말은 일정한 리듬 유형을 지니고 발음된다. 그리고 이러한 낱말의 리듬은 인용형으로 발음될 때의 기본형을 나타낸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낱말이 어울려서 하나의 낱말 같은 단위를 이루는 수도 있다. 필자는 이와 같이 하나의 낱말 또는 둘 이상의 낱말이 모여서 하나의 단위를 이룰 때에 이를 “말토막”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말토막은 한국어에서 중요한 리듬 단위의 구실을 한다. 이같은 말토막은 그 안의 한 음절에 강세가 없으며 그 강세의 위치에 따라서 상이한 리듬 유형을 이루어 낸다. 다음에 우리말의 리듬을 음절 수와 유형에 따라 제시한다.

1. 단순 악센트의 리듬

단순 악센트의 리듬은 하나의 악센트를 지니는 말토막에서 나타나는 리듬을 뜻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하나의 낱말이나 하나 이상의 낱말로 구성된 말토막이 모두 포함된다. 단순 악센트의 리듬을 음절 수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1. 2 - 음절 말의 리듬

2 음절 낱말의 리듬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실현된다. 하

나는 두 음절중에서 첫음절에 강세와 길이가 놓이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둘째 음절에 강세가 놓이는 경우이다. 여기서 길고 강한 음절은 < 〇 > 로 나타내고 짧고 약한 음절은 < . > 로 나타낸다.

1.1.1. < 〇 . > 형

'사아람,	'자아랑,	'고오장,	'시이장
'그으림,	'사아과,	'소오장,	'대애장
'수우건,	'으음식,	'대애문,	'서언거
'저언기,	'저언화,	'책상,	'정부

1.1.2. < . 〇 > 형

사'람,	지'도,	보'리,	사'과
지'방,	바'람,	고'래,	노'래
노'리,	고'리,	다'리,	소'리
기'린,	사'슴,	시'간,	바'지

1.2. 3 - 음절 말의 리듬

세 음절로 된 낱말에 나타나는 리듬은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즉, < 〇 . . >, < . 〇 . >, 및 < . . 〇 > 형이다.

1.2.1. < 〇 . . > 형

'여언구소,	'버언전소,	'소오대장,	'사아령관
'자양조림,	'언대장,	'굴령쇠,	'이이승만
'이이순신,	'김치푹,	'혼자서,	'불국싸

1.2.2 < . ○ . > 형

저'고리,	사'탕방,	며'느리,	키'다리
보'파리,	구'렁이,	모'란꽃,	다'람쥐
소'나기,	서'라벌,	우'체국,	자'동차
바'닷까,	도'라지,	화'장실,	어'머니

1.2.3. < . . ○ > 형

가지'마 !,	서라'벌 ?,	수지나 !,	부리'요 !
그래'요 !,	여보'쇼 !	(수진아),	(불이요)

< . . ○ > 의 리듬은 인용형에서 보다는 의문문이나 명령문, 또는 감탄문에서 나타나며 특히 사람을 호명할 때에 자주 쓰이는 리듬 유형이다. 따라서 이들을 단순한 인용형으로 발음하면 < . ○ . > 의 리듬으로 실현됨을 확인할 수 있다.

1.3. 4 음절 말의 리듬

네 음절 말에서 나는 리듬은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또한 이러한 네 음절로 된 말은 <기다리다> 와 같이 하나의 낱말로 이루어진 것이 있는가 하면 <구름다리> 와 같이 복합어의 구성을 보이는 것도 있으며, <연구소에> 와 같이 명사에 토씨가 붙은 형태도 있어서 내부 구조는 다르다. 그러나 여기서의 관심은 이들이 엮어 내는 리듬 유형이다.

1.3.1. < ○ . . . > 형

'호오랑나비,	'붓쌈김치,	'빈대머리,	'시이경국장
'모오자르다,	'여연구소에,	'하안구근행,	'편집시례

1.3.2. < . . o . . > 형

해'바라기, 기'다리다, 소'나기가, 하'라버지
 드'러가면, 구'름다리, 조'선호텔, 동'아일보

1.3.3. < . . o . > 형

바지'랑때, 고드'름똥, 서리'말파, 기다'린다
 바라'본다. 우체'국짱, 가보'겠파, 느러'간다

1.3.4. < . . . o > 형

여보세'요!, 기다려'봐!, 가시지'요!, 뭐라구'요?
 편집시'레, 드러가'면, 우체국'짱, 바지랑'때!

3 음절의 < . o . > 형 리듬과 마찬가지로 위에 제시한 4 음절의 < . . . o > 형 리듬도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또는 호명할 때에 주로 쓰이는 리듬이다. 이 역시 순수한 인용형으로 발음할 때에는 리듬 유형이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여'보세요, 기'다려봐, 가'시지요, '뭐라구요
 '편집시레, 드'러가면, 우체'국짱, 바찌'랑때

1.4. 5 - 음절 말의 리듬

다섯 음절로 된 말의 리듬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나뉜다. 다섯 음절로 된 말도 네 음절 말과 마찬가지로 그 내부 구조는 다양하나 여기서는 실제로 실현되는 리듬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한다.

1.4.1. < o > 형

'어언제입니까?', '모오르지마는, '조오께습니다

'바아미랍니다. '소오전서라도, '조오키는하나

1.4.2. < . ○ . . . > 형

그'래가지고, 서'우레가도, 바'람소리가
지'방에서도, 무'손니린가 ? 기'다리라고

1.4.3. < . . ○ . . > 형

허드'렌니레, 드러'갈따고, 도라'봐알지만
부지'런하다, 어리'숙캐도, 무러'뵘씨다

1.4.4. < . . . ○ . > 형

기다리'겠따, 보파리'장사, 서울대'학교
도라지'꼴만, 스스러'머엄는, 어리서'걸편
(도라지꽃만)

1.4.5. < ○ > 형

드러가고'도 , 그러지말'고, 드러뵘시'다
기다리라'고 ? 대한민국'기 ! 해바라기'는

3 음절과 4 음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5 음절의 말에서 강세가 끝 음절에 오는 < ○ > 형의 리듬은 의문문, 감탄문, 명령문 따위에서 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이 순수한 인용형으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리듬 유형이 달라진다:

드'러가고도, 그러지'말고, 드러'뵘씨다,
기'다리라고, 대'한민구기, 해'바라기는,

1.5. 5 - 음절을 초과하는 말의 리듬

다섯 음절을 초과하는 6 음절, 7 음절, 8 음절의 말에 나타나는 리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특히 속도가 빠른 말씨에서는 이와 같이 음절수가 많은 말의 리듬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가령 다음과 같은 보기를 들 수 있다.

1.5.1. 6 - 음절 :

드러가고도'요, 드러나'봅시다, 그레가지고'는
'어어디까지라고, 그'떡킨하지만, 도라다보'면서

1.5.2. 7 - 음절 :

'모오르긴하지마는, 드러나보'십시다, '어어디에가보아도
이'세에상사랍드리, '고오장난차를타고, 서'울대학교에서

1.5.3. 8 - 음절 :

서우레가더라도'요, 드러가지'마알라니까, 가고'십끼는하지만
아'름드리느티나무, 아파트'다안지내에서, '예엔날부터내려오는

9 음절 이상의 말로서 강세를 하나만 지니는 말토막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로는 그리 흔하지 않다. 9 음절 이상의 말을 발음하려면 발음속도를 빨리 해야할 뿐 아니라 한번의 숨으로 많은 음절을 내야하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가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복합 악센트의 리듬

위에서 제시한 자료는 모두 하나의 강세를 갖는 낱말이나 낱말때로 구성된 말토막의 예이었다. 그러나 실제 말에서는 하나 이상의 강세를 갖는 낱말이나 말토막도 적지 않다. 이와같이 하나 이상의 강세

를 지니고 나타나는 리듬을 복합 악센트의 리듬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리고 하나 이상의 강세를 갖는 낱말을 복합 악센트의 낱말이라고 한다. 한국어의 복합 악센트 낱말은 보통 두 개의 강세를 갖는다. 다음에 복합 악센트 낱말을 포함하는 복합 악센트의 리듬 유형을 제시한다. 복합 악센트의 리듬은 하나의 복합어로 실현되기도 하고 두 개 이상의 낱말로 구성되는 말토막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2.1. 복합 악센트의 낱말

복합어의 리듬은 각 구성 요소마다 각각 하나의 강세를 지니고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복합어는 두 개의 말토막으로 실현된다. 그리고 복합어의 각 구성 요소의 리듬 유형은 강세를 하나 갖는 단순 악센트의 리듬 원리에 따라서 결정된다. 복합 악센트의 낱말은 구성 요소의 음절 수에 따라서 다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2.1.1 다음절 복합 악센트 낱말

다음절 복합 악센트 낱말은 첫 구성 요소가 두음절 또는 세 음절로 구성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 | |
|--------------------|---------------|
| 1) '예예방 '주우사, | '보용건 '사아상/사'상 |
| '교오육 '정책, | '저언기 '요오금, |
| '정보 '저언쟁, | '세예종 '실록 |
| 2) '거언전 가'요, | '정신 바'각, |
| '백과 사'전, | '중군 기'자, |
| '언세 대'학교, | '정신 문'화원 |
| '저언자 사'서합 | |
| 3) 증'합 '청사, | 과'낙 '시이장, |
| 시'간 '관념, | 기'념 '잔치, |
| 4) 기'룡 녕'화 (기록영화), | 사'단 법'인, |
| 토'실 토'실, | '바양송 '여언구소, |

서'울 대'학교 (서울대학교)

5) '물리과 대'학 (문리과대학), 테'평양 '저언쟁

이상의 다음절 복합악센트 낱말은 모두 두 개의 강세를 가지고 나타나나 때로는 하나의 강세로 축약되어 발음되는 일도 적지 않다. 특히 속도가 빠른 말씨에서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가령 다음과 같은 보기에 1에서 강세의 축약을 확인할 수 있다:

'백과 사'전 -> '백과사전 (백과사전)
 기'룡 '녕화 -> 기'룡녕화 (기록영화)
 '세에종 '실록 -> '세에종실록
 종'합 '청사 -> 종'합청사

또한 위에서 복합악센트 낱말로 제시한 보기중에는 문법적으로 복합어(compound word)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낱말의 연결체인 구절(phrase)로 보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가령, “태평양전쟁”, “전기요금”, “정보전쟁”, “교육정책” 같은 말이 그러한 예이다. 이는 문법적인 분석 방법과 긴밀히 관련된 문제이며 나아가서 강세와 리듬의 요소와도 연관을 지어서 결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보고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넘기고자 한다.

2.1.2 단음절 복합 악센트 낱말

단음절 복합 악센트 낱말은 첫 요소가 한 음절로 이루어지고 반드시 그 음절에 강세가 놓이는 낱말의 악센트를 말한다. 이러한 단음절 복합 악센트 낱말은 음절 복합 악센트 낱말에 비해서, 1) 숫적으로 열세일 뿐 아니라, 2) 리듬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불균형의 리듬을 지닌 복합어라고 할 수 있다. 유형별로 보기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주운 '저언시,	'대애 '매이출
'초옹 '고옹격,	'비이 '논리적,
'구우 '민주당,	'바안 '민족적,

- 2) '비이 사'교적, '바안 사'회적
- 3) '신 '발명품, '신 '시이가지
 '전 '유우법,
- 4) '노 '저언시회,

위에 든 단음절 복합 악센트 낱말도 때로는 강세 하나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보기를 들면 다음과 같다:

'초응 '고응격 -> '초응공격
'비이 사'교적 -> '비이사교적
'신 '시이가지 -> '신시가지

2.2 복합 악센트의 구절

복합 악센트의 구절은 복합어라고 볼 수 없는 단위로서 강세를 하나 이상 지닌다. 이러한 구절은 복합어보다 보통 길며 구성 성분 사이에 끊김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강세를 두 개 이상 갖을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강세를 두 개 지닌 것에 한정한다. 몇가지 보기를 들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이임시정부, '경제개발 '오오개년계획,
'여연구원 '고응체규정, 서'울대학교 '부우속병원,
'엄마에 고'향집, 도'라운 나'그네,
'꺼어진불도 다'시보자,

참고문헌

- 이승녕(1960). "현대 서울말의 악센트 연구". 서울대 논문집 9호.
- 이현복(1981). 국제 음성문자와 한글 음성문자. -원리와 표기법- 과
학사
- (1982). "한국어 리듬의 음성학적 연구". 말소리 제4호. pp.
31-48. 대한음성학회.
- (1985). "Visi-Pitch 에 의한 운율자질의 분석 고찰". 말소리
제9-10호, 대한음성학회.
- (1989). 한국어의 표준발음, 교육과학사.
- (1987). "현대 한국어의 리듬에 관한 고찰: 세대간의 리듬 변동
현상". 어학연구 23권 2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정인섭(1965). "우리말 악센트는 고저(Pitch) 악센트다". 중앙대학교
논문집 제10호.
- 최현배(1961). 우리말본, 정음사.
- 허 웅(1970). 국어 음운학, 정음사.
- 황희영(1969). 운율 연구. 형설출판사. 서울.

ABSTRACT

Linguistic Phonetics and Korean Language Teaching
- A Phonetic Approach to Teaching Standard Pronunciation -

Hyun Bok Lee

The teaching of pronunciation is one of the areas in which linguistic phonetics can play an extremely useful role.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application of the results of my phonetic research to the actual teaching of Korean standard pronunci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speech rhythm.

It has been found that Korean words and utterances of various lengths are pronounced in standard Korean with one of the four main rhythmic patterns, each containing a strong stress. Unless

we get the rhythmic patterns right in pronouncing Korean words and utterances, therefore, the resulting pronunciation is bound to sound dialectal or incorrect and in many instances even unintelligible to listeners. Hence the undeniable need to devise a useful technique to teach the Korean speech rhythm in a systematic way.

In this paper each of the four main rhythmic patterns is presented and elaborated with sample examples taken from the living Korean. It is hoped that these examples of words and utterances can be used at the same time as useful pronunciation drill material not only for Koreans with dialectal background but also for foreign learners of Korean.